

지역 소식통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

스마트경로당 현장 방문

부안군은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이 18일 부안을 모산 경로당과 대한노인회 부안군 지회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스마트 경로당 사업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화영 권한대행은 부안을 모산경로당을 방문해 화상 시스템과 건강측정 장비를 확인하고 스마트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마감 임박

정읍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29일 방문 접수, 31일 비대면 접수로 각각 마감한다.

접수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휴대전화와 자동 응답 시스템(ARS, 1334 내선 1번), 인터넷 농업e지를 이용해 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29일, 비대면 접수는 이를 뒤인 31일 끝난다.

단, 신규 신청자를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지난해와 신청 유형이 달라진 대상자는 대면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시는 접수가 모두 끝나면 6월 중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소방서 1군민 1후원

계좌 갖기 캠페인 전개

부안군 농농인재육성재단은 지난 14일 부안소방서를 방문해 장학금 1군민 1후원계좌 갖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참여를 독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재단 관계자들이 소방대원들을 대상으로 부안군 장학사업의 취지와 운영 현황, 정기후원 참여 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캠페인의 취지에 공감한 일부 소방대원들이 현장에서 정기후원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힘을 보탰다. /부안=김석진 기자

# 청년·유아·가족 모두 고창 갯벌로

## 고창군, 고창갯벌 생태관광 본격화... 청년캠프·사운드워킹·아기 새 교실 등 운영

고창군이 청년과 어린이, 가족이 함께하는 다채로운 생태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올해 고창갯벌 생태관광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18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5~17일(2박3일)간 '고창갯벌 청년캠프'가 성황리에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온 다양한 분야의 청년 기획자와 활동가들이 고창갯벌을 둘러보고, 젊은 감각의 생태관광 콘텐츠 발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동시에 24일까지 '고창갯벌 사운드워킹'이 진행 중이다. 참가자들은 사운드 키트를 활용해 갯벌의 소리를 직접 채집하고 기록하고, 바람과 물결, 다양한 생명이 만들어내는 소리를 따라 걸으며 고창갯벌의 생태를 새로운 감각으로 경험하게 된다.

22일 첫 운영을 시작하는 유아생태 교육 프로그램 '고창갯벌 아기 새 교실'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어린이들과 갯벌식물원을 견고, 갯벌 소리 듣기, 염생식물 체험활동 등 오감을 활용한 놀이형 교육이 진행된다.

30일에는 가족 프로그램 '이달의 새 탐조 교실'이 열린다. 전문가와 함께 계절 따라 변화하는 갯벌의 생태를 배우며, 탐조 초보자도 고창갯벌을



보다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외에도 5월 참가 모집을 시작하는 '고창갯벌 어린이 레인저스'는 초등학생들이 고창갯벌 모니터링과 해양 쓰레기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활동 결과물은 오는 11월 전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고창갯벌 버드왓쳐스 데이(7월), △고창갯벌 맨발걷기대회(10월), △고창갯벌 빅버드레이스(11월) 등이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탐조와 생태체험, 맨발걷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진 고창갯벌만의 생태관광 브랜드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창갯벌은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하고 멸종위기 철새의 주요 이동 경로이자 서식지로서 국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1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고창군은 이러한 생태적 가치를 지역사회와 방문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생태교육과 체험, 청년 참여 프로젝트, 탐조문화 확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 “석정지구, 대한민국 최고 시니어타운으로”

###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석정출장소 신설·파크골프장 조성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가 고창읍 석정지구를 행정과 생활 편의, 레저와 문화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대한민국 최고 명품 시니어타운'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전격 발표했다.

심덕섭 후보는 “고창의 대전환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중심에 석정지구가 있다”라며,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3천 여 석정주민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민생 행정과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번에 공개한 석정지구 실행계획의 핵심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창읍사무소 석정출장소' 전격 신설이다. 석정지구 입주주민과 어르신들이 멀리 읍내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 출장소를 설치, 행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심덕섭 후보는 “5억 원 이내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석정출장소 신설을 완료하겠다”라며, “동네에서 편리하게 모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행정·복지 서비스 만족도를 수직 상승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연계해 군청사의 사무공간을 전면 재배치하고, 어르신

과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민원실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시니어 세대의 든든하고 안전한 삶을 위한 촘촘한 생활·안전 공약도 전면 배치됐다. 시니어 거주 주택 사물인터넷(IoT) 편의 지원 시스템을 전격 도입해 독거 어르신과 고령층 가구의 안전을 실시간으로 돌보고, 늘어나는 이주 수요에 맞춰 '휴양형 빌라 신축'을 추진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레저·문화 부문에서의 파격적인 공약이 눈길을 끈다. 심 후보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을 위해 석정지구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 후보는 “석정출장소 신설과 파크골프장 조성은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실천하는 공약”이라며, “민생 행정과 주거 안정을 통해 3천 여 석정주민 모두를 품는 따뜻한 통합의 일꾼이 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어 심 후보는 “오직 성과와 비전으로 군민의 자존감을 높일 것이다. 짧고 유능한 경제일꾼 기호 1번 심덕섭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달라”며 화합과 지지를 호소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5·18 진상 규명 외친 최덕수 열사 추모제 개최

### 정읍 연지아트홀 광장에서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 시민문화제' 열려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군부독재 철폐 촉구하며 분신한 희생 기려

최덕수열사 추모사업회는 지난 16일 정읍 연지아트홀 광장에서 시민과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덕수 열사 38주기 및 5·18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 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1988년 단국대학교 재학 중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철폐를 촉구하며 분신한 최덕수 열사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열사가 남긴 민주주의와 민중항쟁 정신을 후대에 온전히 전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날 현장에는 김옥자 추모사업회장을 비롯한 회원들, 열사의 모교인 배영고등학교 교장과 학생회, 단국대학교 민주동문회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추모의 시간을 가지며 열사의 뜻을 되새겼다. 김옥자 추모사업회장은 “이번 문화



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아픔을 기억하고, 자유와 정의를 위해 헌신한 최덕수 열사의 정신이 시민들 곁에 다시 살아 숨 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연 시장 권한대행은 “민주와 정의의 달인 5월에 열사 추모 38주기 문화제가 열려 뜻깊다”며 “올해 1월 아들의 염원을 알리기 위해 애쓰시다 세상을 떠난 고(故) 고순임 여사와

5·18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최덕수열사 추모사업회는 앞으로도 열사의 조국 사랑과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들에게 5·18 민중항쟁의 의미를 알리고, 민족지주와 통일에 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행정 공백 없는 현장 점검 추진

### 유호연 권한대행, 현장중심 행정 추진... '미래·민생 사업 차질없이'

유호연 정읍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수성동과 연지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칠보면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준비 상황과 미래 기반 조성 사업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한 기반 조성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시민 일상과 직결된 민생 사업은 물론, 지역의 미래가 달린 주요 현안들이 행정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살피는 데 집중했다.

먼저 유 권한대행은 수성동과 연지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접수 과정부터 지급까지 시민의 이동 동선을 점검하고 민원 발생 시 대응 체계도 함께 살피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칠보면 시산리 일대에 짓고 있는 농촌유학 가족체험형 거주시설 현장으로 이동해 공사 진행 상황을 살폈다. 이 시설은 총사업비 40억원을 들여 단독주택 10호와 공동이용시설



을 만드는 사업이다. 도시 가족이 농촌에 머무르고, 지역 학교와 연계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공진률은 약 90%로, 오는 6월 공사를 마치고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올 상반기 운영을 앞둔 무성서원 유교수련원 조성 현황을 찾아 시설 전반을 확인했다. 총사업비 60억여원이 투입된 이곳은 숙박과 체험 기능을 모두 갖춘 수련 시설이다. 유 권한대행은 “시민의 삶과 연결된 사업은 어떤 상황에서도 멈춤 없이 추진돼야 한다”며 “민생사업은 더욱 촘촘히 챙기고,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활력으로 이어질 미래 기반 사업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